

/ since 1986
SUNBO NEWS

2025.4.15.
 Vol. 255

SUNSHINE 2027 | 친환경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주요소식

‘소통과 친목의 장’ 임원 간담회 ‘찐톡데이’ 개최

선보 주니어보드와 선포터즈가 3월 26일 선보공업 본사 의전실에서 임원 간담회 ‘찐톡데이’를 개최했다.

찐톡데이는 선포터즈와 주니어보드가 주관하는 직급 간 소통의 장으로, 사원과 선임급 직원들이 임원진을 찾아 회사 운영 및 조직문화와 관련한 건의 사항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임원 3명과 직원 10명이 참여해 ▲근무환경 및 제도 ▲조직문화 ▲복지 및 편의시설 ▲사내 행사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임원 측에서는 선보Family 박두선 부회장·경영지원 담당 서재욱 부사장·경영기획/품질경영 담당 최경호 상무가 자리했으며, 김정석 책임·권상웅 선임·김수환 선임·백진호 선임·이명호 선임·장봉수 선임·강지혜 사원·고나원 사원·박영준 사원·이수지 사원이 사전에 취합한 선보Family의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선포터즈와 주니어보드는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보Family의 업무 또는 업무 외 고충과 개선 방안,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57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는 임원 3명, 책임 14명, 선임 26명, 사원 14명 등 직급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포터즈와 주니어보드는 간담회에서 ▲부서 간 연장근무 및 당직제도 개선 ▲하계휴가 연장 및 연차 사용 관련 인식 개선 ▲통근버스 노선 증설 및 배차시간 등 근무환경 개선안을 건의했다. 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확대 ▲일정 공유 활성화 ▲인사고과 공정성 제고 등 조직문화 개선안과 ▲노후 인프라 개선 ▲문화 활동 지원 확대 ▲동호회 지원금 상향 등 복지제도 관련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사내 행사 일정 조정, EPC 제품 대응을 위한 CS 부서 신설, 회식 정례화 및 비용 지원, 부서 간 R&R 정립 등 다양한 안건이 제시됐다. 임원진은 각 안건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 여부, 계획 등을 소상히 공유했다. 이번 찐톡데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나은 업무환경과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2월 새로운 구성원들을 맞이하며 출범한 주니어보드와 선포터즈는 임직원 간 스킨십을 통한 동료애 강화와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SUNBO NEWS가 새로워졌습니다

“더 많은 선보 가족의 이야기,
 더 넓은 소통의 장으로”

사보 <SUNBO NEWSLETTER>가 기존 4~8면에서 12면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더 많은 선보 가족이 직접 참여하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풍부한 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보 뉴스레터 제작 크리에이터들은 더욱 폭넓은 시야와 관점에서 선보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겠습니다. 사보의 주인공은 바로 선보 가족 여러분입니다.

NEW 코너

선보 주요 완료 프로젝트 소개

- 우리가 함께 만든 성과

선보 플리

- 선보 가족의 사연이 담긴 추천곡 소개

선보로그

- 선보 가족의 리얼 라이프를 담은 하루 소개

What's in my 목표관리수첩

- 선보 가족의 슬기로운 목표관리 수첩 활용법

선보 FAQ

- 부서별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일하다 생긴 궁금증, 여기서 해결하세요!”

선보 챗봇

- 알쏭달쏭 업무 용어와 핵심 정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회사 소식

선보공업, 첫 FSRU 프로젝트 핵심 기자재 공급 성공적 수행

선보공업이 해상 천연가스 설비 'FSRU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선보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LNG 해상 가스 생산 및 공급 설비인 FSRU의 핵심 장비 스킵드(Skids)를 EPC(설계·조달·시공 일괄 수행) 방식으로 공급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선보공업이 고객사의 요청 이후, 기본설계부터 상세설계, 생산설계

및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보는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후속 프로젝트에서 보다 확대된 업무 범위(SoW, Scope of Work)로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제품명 : FSRU/LP Vaporizer skid, Utility skid
- 수행 기간 : 2024년 4월~2025년 3월

FSRU, 왜 중요할까?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는 바다 위에서 액화 상태(초저온, 저압)의 천연가스(LNG)를 고압 상온 기체로 생산하는 설비로, '떠다니는 가스공장'으로 불린다. 육상 시설 없이 바다에서 바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이 설비는, LNG 산업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기술이다.

FSRU 설비는 시간당 약 130t 규모의 LNG를 바다 위에서 기체로 만드는 대형 시설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선보가 글로벌 재기화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SRU 핵심 장비별 기능

① LNG 기화 모듈(Module for LNG Vaporizer System)

- 액체로 차갑게 열린 LNG(액화천연가스)를 가열해 기체 상태로 만들어(재기화) 발전소나 난방 설비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함

② 해수 가열 시스템(GW/SW Heater System)

- LNG를 기체로 만들 때 필요한 열을 바다의 따뜻한 물에서 얻고, 바닷물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GW, Glycol Water)을 사용해 열을 전달
- 바닷물의 자연열을 활용하므로 비용 소모가 적어 경제적

③ 스팀 가열 시스템(GW/Steam Heater System)

- 바닷물이 차가워 열이 부족할 때는 따뜻한 증기(스팀)를 만들어 LNG를 기화하는데, 이때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부동액(Glycol Water)을 사용

④ 해수 펌프 시스템(GW Pump System)

- 바다에서 얻은 따뜻한 열을 배 위에 있는 LNG 기화 장비로 전달하기 위해 부동액(Glycol Water)을 계속 순환시키는 펌프



함께한 사람들

영업



영업2팀

2023년 처음 이 제품을 영업할 때 새로운 Process의 EPC 공사를 진행하며 시스템 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이제 완성된 제품이 공급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회사의 확장 가능성과 역량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졌으며, 앞으로의 영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수진 선임

프로젝트에 함께해 영광입니다. Project A, B의 성공적 납품을 축하합니다! 선보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향후 글로벌 LNG 수요 확대에 따른 FSRU 개조 공사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뤘다면 좋겠습니다.



박영준 사원

FSRU 프로젝트는 선보가 처음으로 Utility Skid와 LP Vaporizer Skid를 납품한 뜻깊은 기회라 영업 팀에서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 팀의 협업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



김병열 전무

플랜트설계1담당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보인의 底力(저력)입니다. 선보인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진태 전무

생산설계담당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생산설계는 조선 UNIT 설계에서 중형 Skid 설계로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설계자 여러분의 도전에 감사드리며, 다음 목표인 HP Vaporizer 대형 Module 설계도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영수 상무

플랜트설계3담당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납기를 성공적으로 준수했던 데에서 선보의 참된 저력을 느꼈습니다.



박종현 상무

플랜트설계2담당

선보의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재기화 사업의 EPC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고, 영업, 설계, 생산 전 단계에 걸쳐 힘써주신 선보 가족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고중현 책임

설계3팀

갑작스러운 업무 투입에도 불평 없이 모든 일정을 맞춰준 설계3팀 팀원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납기를 준수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주신 담당자들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강영한 책임

설계4팀

FSRU 모델링에 참여해 매우 뜻깊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진황 책임 전계장기본/상세설계팀

장비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으로 납품하게 돼 기쁩니다.



박귀남 책임 기계설계팀

FSRU REGAS는 GAS consumer가 대용량이라 장비 설계에 어려움이 예상 됐고 신규 아이템 프로젝트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id의 핸들링, 운반, 설치의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보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성권 책임 기계설계팀

FSRU에 참여하며 처음 접하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관계 부서가 합심해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선보 가족에게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전성민 선임 기계설계팀

프로젝트 초반부터 촉박한 납기 일정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세스설계팀, 조달팀, 생산팀, 품질팀, 모두 하나가 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상욱 선임 설계3팀

프로젝트에 참여해 영광이며, 후속 호선에서도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민 선임 설계3팀

선보의 기술력과 팀워크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배움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정대환 선임 설계3팀

처음 하는 프로젝트라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활발한 협업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습니다.



정종원 선임 설계3팀

새로운 시스템과 형태의 Skid UNIT 설계를 접하며 역량 향상의 기회를 경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진아 사원 전계장기본/상세설계팀

처음 혼자 맡은 프로젝트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던 만큼 많이 배울 수 있어 설계 역량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혜선 사원 프로세스설계팀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윤정 사원 설계3팀

처음 해보는 플랜트성 업무라 긴장과 걱정이 많았던 프로젝트였는데, 타 부서의 많은 도움을 받아 무사히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C, D 업무는 더 높은 완성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재조달



황지석 책임 자재조달팀

고생해주신 각 부서원의 협업으로 무사히 납품하게 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라도 협업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훈 선임 자재조달팀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기쁩니다. 모두가 함께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선임 자재조달팀

FSRU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고, 함께한 동료들께도 격려를 전합니다.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사업 기획



정성화 책임 신사업 기획

처음 수주한 FSRU 개조 공사에 참여해 영광입니다. 추가 수주받은 C, D 공사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 더 높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화 책임 플랜트생산팀

선보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영업에서 생산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전형주 선임 전계장시운전팀(프로젝트 당시 생산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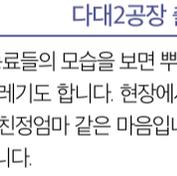
공사 중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부서의 많은 도움으로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완벽한 Skid가 납품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생산



최예원 선임팀장 다대2공장 출하준비반

자신의 공정이 아니라도 합심해서 열심히 임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다음에는 어떤 아이템을 하게 될지 연인을 기다리듯 설레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마지막 공정을 마칠 때면 예쁘게 단장해서 딸을 시집보내는 친정엄마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경험 못 하는 것을 선보에서 많이 하니 기쁩니다.



정상규 기원 조립2반

첫 호선인 만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프로젝트도 잘돼서, 추가로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주 선임팀장 다대2공장 자재지원반

모든 팀원과 함께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돼 보람을 느끼며, 후속 호선 또한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선 기원 다대2공장 자재지원반

동료들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사원 다대2공장 자재지원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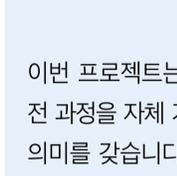
새롭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움의 기회를 얻어 기쁘고, 더욱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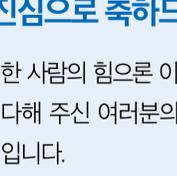
성재경 책임 품질경영2팀

프로젝트 초반 Skid 크기가 너무 커 작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으나, 생산, 설계 및 협력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프로젝트도 더 좋은 품질로 납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두선 선보Family 부회장

이번 프로젝트는 당사가 EPC 방식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결과이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이룬 FGSS(연료공급 시스템)의 성과에 이어, 다시 한번 당사의 기술력과 품질, 납기 준수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고, 이로써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상민 선임

당사는 이제 단순한 Unit 제작을 넘어, 설계·조달·제작·품질 전 분야에 걸쳐 세계가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며, 그 중심에는 늘 선보인 한분 한분의 가치 있는 열정이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운전



권진영 책임 전계장시운전

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분과 프로젝트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사는 이제 단순한 Unit 제작을 넘어, 설계·조달·제작·품질 전 분야에 걸쳐 세계가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며, 그 중심에는 늘 선보인 한분 한분의 가치 있는 열정이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FSRU 프로젝트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사가 EPC 방식으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결과이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이룬 FGSS(연료공급 시스템)의 성과에 이어,

당사는 이제 단순한 Unit 제작을 넘어, 설계·조달·제작·품질 전 분야에 걸쳐 세계가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며, 그 중심에는 늘 선보인 한분 한분의 가치 있는 열정이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함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회사 소식

선보유니텍·선보하이텍, '선샤인 2027 공유회' 개최

지난 3월 17일 선보하이텍에서 구성원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선샤인 2027 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호남사업장 공유회에서는 현장 의견과 실무자의 아이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호남사업장이 선샤인 프로젝트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공유회에서는 먼저 이세영 선보엔젤파트너스 이사가 지난해 전사적으로 진행한 '인터뷰 100'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했으며,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취합한 호남사업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오중훈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는 "호남사업장은 선보공업의 신사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탄소포집 등 친환경 분야에서 현장 주도로 선샤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성경현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이사는 선샤인 프로젝트의 실행 체계 및

관리 방법을 실무자들의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고덕수 카본밸류 대표는 선보공업과 공동 개발한 탄소포집 장치의 경쟁력과 시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카본밸류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현장의 제조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공유회에 참석한 선보하이텍 김상도 대표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라며 "호남사업장이 현장의 힘과 아이디어로 선샤인 2027을 이끌어가는 대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향후 선샤인 2027 프로젝트팀은 호남사업장에서 분기에 한 번씩 선샤인 공유회 및 간담회를 정기 개최하고, 팀장급 현장 간담회는 매월 진행해 구성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선보Family

선보인이 원하는 선보의 미래 모습은? - 비전·핵심 가치·인재상 설문조사

선보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전과 핵심 가치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구성원들이 바라는 회사의 미래상과 주요 가치를 재정립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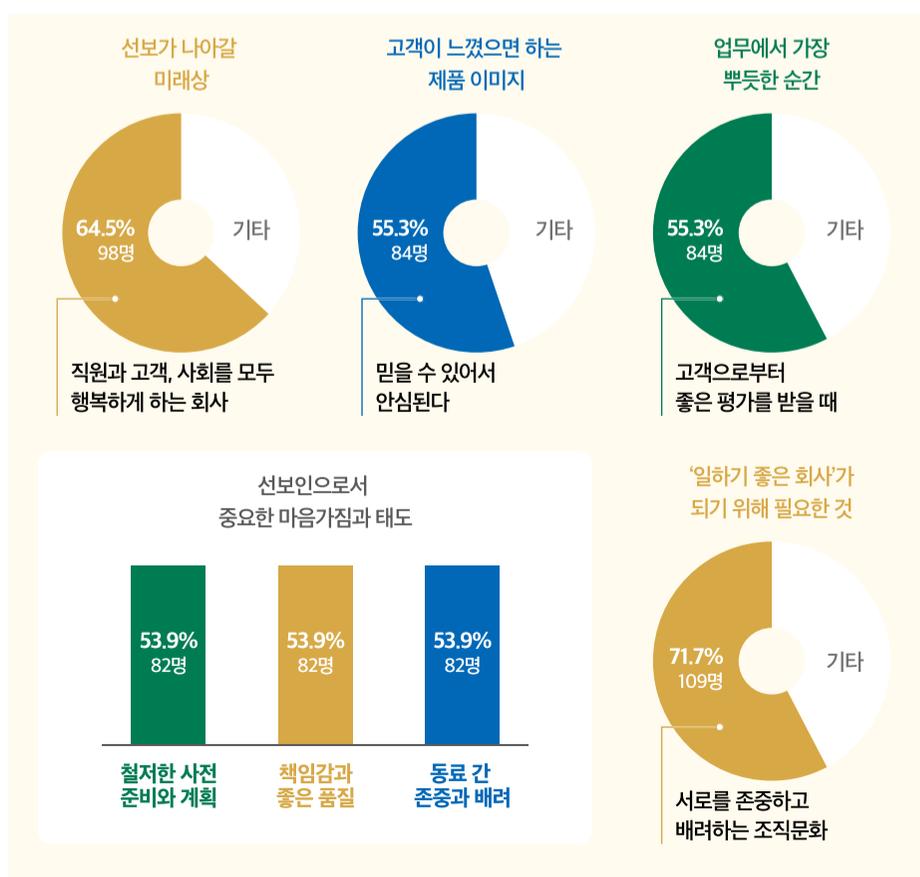
150여 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한 이번 설문(복수 응답 가능)에서 구성원들은 선보가 나아갈 미래상으로 '직원과 고객, 사회를 모두 행복하게 하는 회사'(64.5%, 98명)를 제시했다. 이는 선보의 발전이 단지 회사 내부의 성과로 그치지 않고, 고객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행복과 신뢰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다.

또한, 구성원들은 고객이 선보 제품에 대해 '믿을 수 있어서 안심된다'(55.3%, 84명)는 이미지를 가장 크게 느꼈으면 한다고 응답했으며, 업무를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55.3%, 84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선보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53.9%, 82명) ▲책임감과 좋은 품질(53.9%, 82명) ▲동료 간 존중과 배려(53.9%, 82명)가 선정됐다. 아울러, 선보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일을 잘한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말은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71.7%, 10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보가 더 나은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71.7%, 109명)가 가장 중요하다고 구성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선보 조직문화TF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전 팀장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임원진 논의를 거쳐 회사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인재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된 사항은 향후 전사를 대상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회사 소식 | 신규입사자 대상 멘토링 실시



선보가 1년 미만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링은 신규입사자가 입사한 당일 곧바로 멘토(유관부서 1인, 타 부서 1인)를 매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에 입사한 사원들을 파악해 그룹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개시했는데, 이번부터는 상시 결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멘토링에는 ▲1그룹(멘티 황원우 사원(전계장설계팀), 멘토 김시윤 선임(전계장설계팀)·양승현 선임(자재조달팀)) ▲2그룹(멘티 박형준 사원(프로세스설계팀), 멘토 권영민 선임(프로세스설계팀)·윤동현 선임(플랜트영업팀)) ▲3그룹(멘티 박다연 사원(기

술연구소1팀), 멘토 정영훈 선임(기술연구소1팀)·이명호 선임(재무인사팀))이 참여해 3개월간 활동을 전개한다. 활동비는 티타임, 점심 식사 비용 지원 등을 명목으로 10만 원씩 지급된다. 멘토는 멘티에게 신규입사자 가이드북에 기반한 기업 개요 및 직장 예절, 수칙 등을 안내하고, 멘티가 회사와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 간 친목과 자유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멘토링을 계기로 멘토는 멘티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시너지를 얻고, 멘티는 실력 향상과 잠재력 발굴, 직장생활 흥미 개발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SUNBO 신규 입사자 멘토 가이드

멘토의 역할은?

- Work Way·성장전략 이해 등 선보 적응 지원
-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일하는 방식 전수
- 동료·부서 간 친밀도 향상 기회 제공

멘토 활동 가이드

1 회사 & 제품 이해 돕기

- 우리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와 대표 제품, 핵심기술 알려주기
- 관련 부서 담당자를 소개 또는 내부 자료(브로슈어) 공유

2 선행/후행 부서 담당자 및 동료 소개

- 점심 식사나 티타임을 활용해 선행/후행 부서 동료들과의 교류 기회 마련

3 슬기로운 선보 생활 팁 전수

- 사내 동호회 및 행사 참여, 복지제도 활용 등 더욱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위한 팁 전수

4 고민 & 애로사항 경청

- 필요시 멘티의 업무 내·외적 고충 상담 지원
- 경청 및 조언 제공을 통한 심적 공감대 형성



회사 소식

선보공업, 유럽 최대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탄소중립 기술 협력



선보공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한 탄소중립 기술기업 '카본밸류'를 중심으로 유럽 최대 조선사 '핀칸티에리(Fincantieri)', 글로벌 혁신 투자기관 '마인드더브릿지(Mind the Bridge)'와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시작한다.

지난 3월 12일과 13일 핀칸티에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총괄 책임자인 살바토레 보나코르소(Salvatore Bonaccorso) 이사와 마르코 마리누치(Marco Marinucci) 마인드더브릿지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은 선보엔젤파트너스, 선보공업 본사와 카본밸류를 차례로 방문해 향후 협력 방향과 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첫날 핀칸티에리는 서울 선보빌딩에서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자사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소개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카본밸류를 방문해 RPB(회전충전반응기, Rotating Packed Bed) 기반 탄소 포집 기술을 소개받았다. 핀칸티에리는 카본밸류의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심도 있는 기술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보공업을 방문, 다대2공장에 마련된 카본밸류의 RPB 파일럿 설비를 참관하고,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과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카본밸류는 선보공업이 전략적으로 투자해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 전문기업이다. 특히 양사는 공동으로 육상 및 해상 환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RPB 기반의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개발하며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선보공업은 카본밸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의 탄소배출 저감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살바토레 이사는 "선보공업과 카본밸류가 개발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라 평가하며, 협력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르코 마리누치 대표는 "선보공업과 카본밸류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혁신 생태계가 인상적이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4월 미국에서 열리는 기후 주간(Climax Week)에도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선보공업은 글로벌 조선 및 탄소중립 기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카본밸류와의 공동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선보 챗봇

CCS,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선박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반드시 줄이도록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배들이 탄소를 지금처럼 많이 내보내면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는 배 운항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선업계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탄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탄소 포집 시스템(Carbon Capture System)'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탄소 포집 시스템

작동 원리

- 1 굴뚝이나 배의 배기관에서 나오는 가스를 모아, 가스에 혼합된 CO₂를 특수한 흡수액이나 고체 물질로 흡수해 분리
- 2 흡수된 CO₂를 재분리해 저장이나 활용이 쉽도록 고농도로 압축
- 3 압축된 CO₂를 땅속 깊이 저장(CCS 방식)하거나, 화학제품이나 연료로 재활용(CCUS 방식)

작동 방식

- 1 흡수탑 방식(전통적인 방식)
 - CO₂가 포함된 가스를 긴 탑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이때 탑 안에 있는 특수한 액체(흡수제)가 CO₂를 흡수해 따로 모으는 방식
 - 전통적 방식으로 설비가 크고 무거우며, 에너지 소비가 크므로 공간이 좁거나 움직임이 심한 배에서는 부적합
- 2 RPB 방식(새로운 방식)
 - 선보공업과 카본밸류가 공동 개발한 회전충전반응기(RPB) 방식으로, 회전하는 원통 형태의 설비를 이용해 빠르게 CO₂를 흡수하는 혁신적 방식
 - 원심력을 이용해 CO₂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잡아냄

카본밸류 RPB 기술의 강점

- 1 설비 소형화
 - 기존 방식보다 설비가 1/10 작아 배 위나 좁은 공간에도 편리하게 설치 가능
- 2 에너지 사용 감소
 - 같은 양의 CO₂ 기준 에너지 35% 절감 가능
- 3 효율적인 포집 능력
 - 회전력을 이용해 더 빠르고 많은 탄소 포집으로 IMO 규제 충족



사회공헌

선보Family, 산불 피해 김해시에 구호품 지원



선보Family가 3월 24일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해시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선보는 산불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백숙과 김밥, 라면 등 식사와 간편식, 생수 등 1000여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김해시에 전달했다. 추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사랑의열매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3월 22일 김해시 한림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은 나흘 만인 25일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 10여 가구가 대피했고, 산림 97ha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김청옥 선보유니텍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은 선보Family를 대표해 피해 수습 중인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화재 발생 시 인근 주거지와 생태환경에도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도 신속한 작업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와 지정 장소 휴연 등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회사 소식

선보엔젤파트너스, 'MBN 블루레이스 거제' 참가

선보엔젤파트너스 임직원들이 3월 9일 거제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MBN 블루레이스 거제'에 참가했다. 임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제의 봄 바다를 만끽하며 동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허찬 대리가 사내 1등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임직원들은 평소 마라톤에 꾸준히 참가하며 러닝을 즐기는 오종훈 대표와 함께 건강한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



수상

SB탁구 동호회, 유남규배탁구 대회서 우수 성적 거둬



선보 대표 탁구 동호회인 'SB탁구 동호회'가 '한국거래소와 함께하는 제7회 유남규배탁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3월 8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SB탁구 동호회를 대표해 최두영·김광수 책임, 이동민 선임(이상 재무인사팀), 안정빈 책임(전산팀)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유남규배탁구대회는 2022년 11월 부산을 연고로 창단한 한국거래소 탁구단이 창단 이래 약 1,400명의 부산지역 탁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 중인 생활체육행사다.

최두영 책임은 남자부 개인단식 7부에서 우승과 함께 6부 승급의 기쁨도 얻었다. SB탁구 동호회 고문인 최두영 책임은 지난해 제27회 부산광역시장기 탁구대회에서도 8부 리그 우승을 거두는 등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 왔다.

최두영 책임은 "초등학교 때 동네 탁구장에서 처음 탁구를 접한 후 꾸준히 해오다 선보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즐기게 됐다"며 "지난해부터는 부산광역시탁구협회에 정식 등록하고 시합에 출전 중"이라고 도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SB탁구 동호회도 협회에 정식 등록하고 동료 3명과 함께 출전해 의미가 컸다"며 "8강에 입상해 6부로 승급돼 기쁘고, 회사에서 단체 유니폼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선보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가끔 지칠 땐 탁구로 함께 땀 흘리며 웃을 수 있는 동호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SB탁구 동호회 회원들과 훌륭한 사내 탁구장을 지원해주는 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

‘세대 간 협업과 조직소통 역량 강화’ 아침특강 개최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이 3월 12일과 18일 각 법인 교육장에서 아침특강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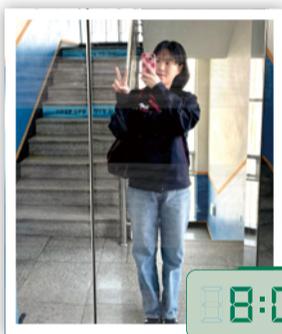
이번 특강은 ‘세대 간 협업과 조직소통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밸런스게임 등 흥미로운 콘텐츠가 포함되며 호응을 얻은 이번 특강에서는 ‘중간 점검 습관화’, ‘마감 기한 및 결과물 관련 지시 구체화’ 등이 협업 역량 강화방안으로 제시됐다.

선보로그

책상부터 현장까지, 설계팀 사원의 하루 - 강지혜 사원

‘오늘의 한 걸음이 모여 선보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내고 있는 선보Family의 하루 일상을 공개합니다.

오전일과



8:00

오늘도 출근 완료!
엘리베이터 앞에서 셀카 한 컷하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며 아침부터 텐션 업!
본격 업무 전 거울 앞에서 마음을 다잡니다.
오늘의 목표는 ‘아근 없이 업무 다 끝내기~!’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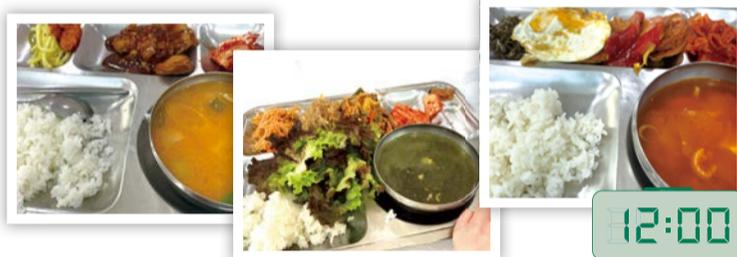
오늘은 현장 점검 DAY!
설계는 책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진정한 완성!
오늘은 팀원들과 현장을 점검하며 작업 환경을 정리 중입니다.
깔끔한 현장이 업무 효율을 높여주므로, 꼼꼼히 쓰고 점검합니다!
바질 수 없는 MZ샷도 함께!



10:00

설계8팀 팀원으로서 신사업 프로젝트의 전계장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다른 부서와 협력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설계 변경 사항을 조율해요. 팀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및 출도 리스트를 점검하며, 각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은 H3493 LPG 재액화 SKID 기타 설치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오후일과



12:00

드디어 점심시간!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메뉴는 밥, 김치, 떡갈비, 어묵볶음, 그리고 국이 포함된 한 상 차림이네요. 구평공장 식당의 국 간이 입맛에 꼭 맞아서 항상 한가득 담는답니다. 맛있었던 다른 식دان도 한번 자랑해봅니다~



13:00

오후 업무 시작! 오전에 작성한 출도 리스트를 점검하고 팀장님께 POR 결재 받는 중입니다! 너무 떨리는 시간이죠. 팀장님이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찾으시면 항상 땀이 비질비질 ^^;; 더 꼼꼼히 살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 중입니다! 우리 김갑진 팀장님 짱!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하고, 머리를 식힐 겸 다과 타임과 함께 사보 이벤트를 푸는 중입니다.



16:00

이번 이벤트는 ‘직장인 문해력 테스트’인데 생각보다 어려워 ChatGPT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
하지만 사자성어는 임우택 상무님이 바로 풀어 주셨다는 사실... 역시 설계3담당 공식 아빠♥

마지막으로 추가 선주 Comment 사항을 Modeling 확인하고 있어요! 개정 사항이나 추가 출도 물량을 점검하고 내일 해야 할 업무들도 정리하면 퇴근 시간이 임박합니다. 집에 가서 뭘 먹지 행복한 고민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러 가보겠습니다~



17:00

선보 맛탐

맛집 동호회가 주목한 부산 맛집

구석구석 우리 지역 맛집을 찾아다니는 '선보 맛집 동호회(회장 김정식 책임, 총무 천병철 선임)'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을 판매하는 부산 맛집을 선정해 봤습니다.



<p>민물장어 양산도집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99-34</p>	<p>삼겹살 그날이후 불타는 삼겹살 본점 부산 강서구 새진목길11 번길 22, 1층</p>	<p>낙지 낙지명가 아낙촌 본점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22, 1층</p>	<p>우삼겹 본가 부산사하점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403</p>	<p>오리고기 강동농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95</p>	<p>곱창 제일 돌곱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35번길 4</p>
<p>대게 크랩크랩 하단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84, 4층</p>	<p>오겹살 홍돈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56-2 유진아파트</p>	<p>물회 명품 포항물회 부산 사하구 승학로2번길 2</p>	<p>갈비 하단 산수 갑산 숯불갈비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50번길 8</p>	<p>순대국밥 동해옥 부산 사하구 제석로 18번길 78, 1~2층</p>	

선보 플리

출퇴근길, 어떤 노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바쁜 하루의 시작과 끝,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시나요? 선보Family의 '나만의 플레이리스트(플리)'를 소개하며, 노래 속에 녹아 있는 저마다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선보하이텍 가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 넬



권상웅 선임 선보하이텍 생산팀

지금의 아내를 17년 전인 2008년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데이트로 등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줄로 된 이어폰을 서로 한 쪽씩 착용하고 듣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처음 데이트하던 풋풋하고 간질간질했던 추억이 떠올라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To. 선보Family

"감성 충전이 필요할 때 함께 듣고 힘내요"

Lemon Kenshi Yonezu



강태형 연구원

교환 학생으로 일본에 갔던 시절, 일본어를 좀 더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유명한 J-pop을 듣고 따라 불렀는데, 당시 즐겨 들었던 노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곡입니다. 일본 연구실에서 단체로 가라오케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노래를 불렀어 일본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받은 추억이 생생하네요~

To. 선보Family

"회식 때 노래방 같이 가실 분!"

선인장 심규선



김덕현 책임 선보하이텍 생산팀

운전하다 우연히 듣게 된 후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곤 합니다. 웬지 모르게 기분이 업되고, 위로도 되는 곡이라 선보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To. 선보Family

"작은 위로가 되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Love Lee 악동뮤지션



이효정 선임 선보하이텍 설계팀

멜로디도 너무 밝고 '이유 없이 그저 좋아한다'는 가사가 너무 좋아 자주 듣게 됩니다. 제 성이 이 씨이기도 하고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혼이 나서 기분이 우울하고 힘이 없을 때 퇴근길에 듣기 시작했어요. 때론 컨디션이 너무 난조인 날에 힘내려고 듣기도 합니다.

To. 선보Family

"활기찬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꼭 들어보세요!"



선보Family

What's in my 목표관리수첩 - 최경호 상무·고중현 책임·원윤정 사원



#1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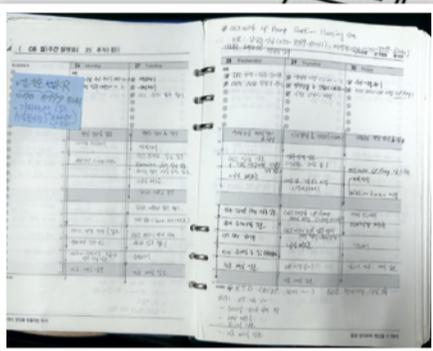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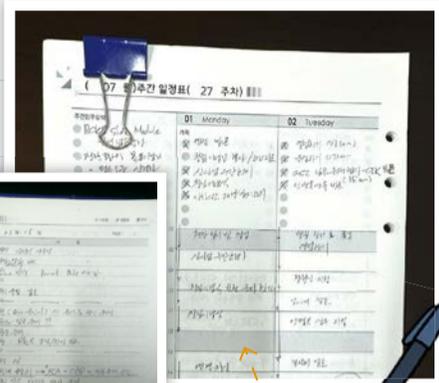
표지 곳곳의 헤진 부분은 목표 관리수첩이 얼마나 오랜 애착 아이템인지 보여줍니다.



최경호 상무

#2 Point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피드백과 논의 사항들도 메모란에 기재해두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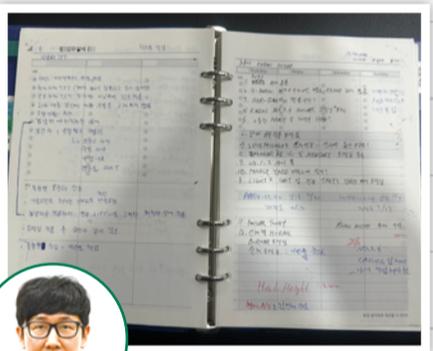


#목표관리수첩 100% 활용하기

회의, 교육, 워크숍, 자료 검토, 미팅, 인터뷰 등 중요한 일정과 업무들로 가득 찬 주간일정표입니다. 바쁜 일정 사이사이 자기 계발을 위한 중국어 공부, 동료들과 꾸준히 진행 중인 독서 토론도 잊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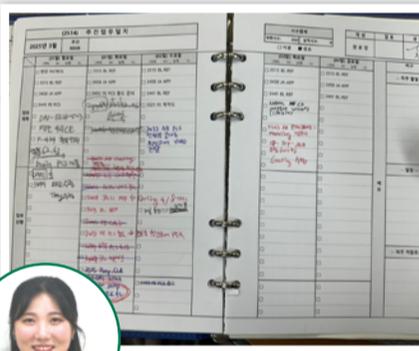
#3 Point

수첩 무게를 덜기 위해 다 쓴 페이지는 떼어내 따로 모아둡니다. 이렇게 하면 수첩 무게도 덜 수 있고, 이전 스케줄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중현 책임 설계3팀

일반 체크 리스트가 있는 내지와 시간 대별로 작성 가능한 내지 두 종류를 섞어, 완료한 일과 해야 할 일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스티커로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스케줄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원윤정 사원 설계3팀

조선 설계에서는 목표관리수첩 내지 보다는 설계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커스텀 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도한 호선들을 보기 쉽게 표시하면 업무 순서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선보 FAQ 전산팀이 알려드립니다

전산팀은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사내 소프트웨어와 업무 시스템을 관장하고, 데이터 등 정보 관리와 기술 보안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안정빈 책임(전산팀)이 선보Family를 위해 자주 묻는 질문-전산팀 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혹은 서버 접속이 안 돼요).

A. 53번 서버의 pp방 ERP 설치방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 일반 권한.bat' 파일을 실행하면 공용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서별 서버는 해당 부서원만 접속하도록 설정돼 있으므로, 전산팀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또한 윈도우 업데이트 시 보안 프로그램과 충돌로 인해 간혹 서버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재설치하면 됩니다.

Q. 인터넷 접속 시 특정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거나 경고창이 떠요.

A. 우리 회사는 보안 정책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막고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메일 수발신 등) 전산팀에 요청하면 임시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업무와 연관 없는 사이트 접속 시, 로그가 기록되며 경고창이 뜰 수 있습니다.

Q. 모니터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요?

A.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양쪽 모두 안 나오는 경우, 모니터보다는 본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한쪽만 안 나올 때는 양쪽 케이블을 바꿔 끼워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니터 문제고, 반응이 온다면 PC에서 보내는 신호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Q. 선보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사용자가 QR코드로 교육 등록할 때 어떻게 하나요?

A. 선보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 QR코드로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ERP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혹 ERP 로그인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문자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ERP는 대소문자 구분이 되지 않고, 교육 QR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사회공헌

선보공업·선보유니텍 임직원,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여



2025년도 상반기 '선보 헌혈의 날' 행사가 3월 6일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 각 공장 앞에서 열렸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단체 헌혈에는 선보공업 19명, 선보유니텍 5명 등 총 24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최근 선보공업은 임직원 헌혈 봉사를 비롯해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 선보Family 차원의 '김해시 산불 피해 구호품 지원'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며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보는 각종 재난·사고가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해진 만큼, 임직원들이 개별로도 봉사와 나눔에 꾸준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

호남사업장 무재해 실천 서약식 개최

선보유니텍 대불공장과 선보하이텍이 3월 27일 현장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무재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에는 김상도 선보하이텍 대표이사(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비롯해 HSE팀, 총무팀, 직영·협력업체 관리감독자가 참석해 안전수칙 준수 결의를 다졌다.

각 부서는 12개 수칙으로 이뤄진 무재해 실천 서약서를 낭독하고 전원 서명하며 안전 근무를 다짐했다. 대불공장은 2025년 HSE 목표를 '안전사고 제로 및 무재해 1,037일 달성'으로 설정했고, 영암공장은 '안전사고 제로 및 무재해 2,189일 달성'을 다짐했다. 각 법인은 서명이 완료된 서약서를 전사 현황판에 게시해 구성원들이 상시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Q.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요청하나요?

A. 우선 '전산요청서'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10만 원 내외는 팀장 결재, 100만 원까지는 임원 결재, 그 이상은 담당 결재로 하면 됩니다. 회람자에는 전산팀을 넣어 주세요.



Q. 출장 중 VPN, ERP 등 시스템 접속이 안 됩니다.

A. 네이버웍스 게시판에 SSL_VPN 다운로드 및 설명이 업로드돼 있으므로, 프로그램 설치 후 설명을 따르면 됩니다. 간략하게는 우선 SSL_VPN을 통해 사내망에 접속한 후, 원격으로 개인 PC에 접속해 작업하시면 됩니다.



Q. 네이버웍스 그룹의 인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그룹 인원 관리 권한은 마스터가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웹페이지에서 '전체 서비스' → '주소록'에 접속해 관리 대상 그룹을 선택하면 인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Q. 납품, 입출고 등 외주업체 계정 생성 절차가 궁금합니다.

A. SCM 사용 권한과 관련해 전산팀에 문의해주시면 계정을 생성해 드립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등록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연락처 등)는 계정 생성 후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Q. 직책이 바뀌었는데 결재선에 반영이 안 돼요.

A. ERP 근태 결재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변경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직책을 포함한 조직도 변경은 인사발령 후 진행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공유 폴더 파일을 누군가 삭제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A. 보안 서버에서는 휴지통에서 삭제된 파일을 찾아 복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버는 삭제 즉시 완전 삭제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산팀은 매일 새벽 백업을 하고 있으니, 전일 작업한 내용까지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EVENT 결과

'직장인 문해력 테스트' 이벤트 당첨자 발표

<SUNBO NEWS> 3월호 '직장인 문해력 테스트' 이벤트에 77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주셨 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등** 치킨 교환권 : 강지혜 사원(설계8팀)
- 2등** 햄버거 세트 교환권 : 조재욱 선임(설계1팀), 최치욱 선임(설계2팀)
-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 박상계 책임(품질경영2팀), 이창석 선임(설계1팀), 조연주 선임(구평공장 생산관리팀), 원윤정 사원(설계3팀), 이경심 사원(보성ENG)



추첨 진행 노진철 책임 (시운전팀)

EVENT

거짓을 찾아라!

<SUNBO NEWS>는 선보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보는 '거짓을 찾아라!'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제시된 정보 중 '거짓된 정보'를 하나 골라 체크박스에 표시해주세요.



선보는 1986년 '남영공업'에서 시작해 1997년 선보공업으로 법인 전환했다.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에 있는 강아지 '반달이'는 본사 다대1공장의 '영순이'와 자매다.
 

선보의 창립 기념일은 7월 1일이다.
 

장기근속자 포상금은 '5년 이상 근무'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부서 : 성명 :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선보공업	최원석 선임팀장	조립1반	2020.04.06(5주년)
	윤영운 감사	-	2020.04.01(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이사(선보엔젤파트너스), 이수지 사원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과장, 배상준 선임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제작 미디어룸 (Tel. 051. 623. 1906)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선보공업	안정빈(04.02) 김광남(04.15) 최재호(04.21) 손정우(04.09) 홍성권(04.15) 이동민(04.24) 백진호(04.10) 조정규(04.17) 배상준(04.25) 하은준(04.12) 정동민(04.18) 추동진(04.25) 이혜원(04.14) 박문영(04.19)
다대1공장	조현상(04.04) 박상언(04.14) 이상도(04.05) 알드린(04.30)
다대2공장	이동주(04.20) 최예원(04.20) 루 삭(04.25)
구평공장	김언진(04.05) 손정학(04.10) 마계신(04.15) B폴리(04.07) 황순영(04.13) 임우택(04.19) 이태수(04.07) 김갑진(04.15) 이원규(04.25)
대불공장	김윤식(04.05) 사라웃(04.16) 나라얀(04.10) 채정명(04.18)
영암공장	다 밋(04.05) 산자이(04.24) 김대영(04.29) 서형철(04.20) 사미르(04.27)
선보피스	룡(04.02) 이석범(04.13) 윤호영(04.12) 이봉룡(04.27)

입사기념일

선보공업	손범석(04.01) 조재욱(04.11) 하은준(04.25) 윤영운(04.01) 최희섭(04.14) 홍성권(04.25) 이현우(04.01) 이상민(04.18) 손정우(04.26) 최우호(04.01) 김시윤(04.19) 송승훈(04.26) 성창훈(04.08) 배상준(04.19) 임영삼(04.30) 여재혁(04.11) 이혜원(04.19) 정현우(04.11) 정차균(04.19)
다대1공장	권두철(04.01) 최원석(04.06) 김수한(04.28) 두(04.02) 박주호(04.27) 이창면(04.02) 박주홍(04.27)
다대2공장	김기주(04.01) 조경선(04.01) 넬 슌(04.25) 유영재(04.01) 정기현(04.05)
구평공장	박성호(04.01) 김규철(04.15) 김갑진(04.26) 이창현(04.01) 김동현(04.19) 하보선(04.26) 정철민(04.02) 최성문(04.19) 조 훈(04.08) 김명운(04.25)
대불공장	이영호(04.01) 마예은(04.08) 박민성(04.10) 이현우(04.01) 김대희(04.09)
영암공장	서형철(04.01) 송인환(04.05) 손명기(04.01) 김덕현(04.25)
선보피스	박경석(04.01) 정남철(04.01) 야 신(04.17) 이상희(04.01) 허성민(04.01) 서진호(04.19) 이석범(04.01) 권병덕(04.04) 권운현(04.23)